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	면담자	정은주		
면담장소	학익동 다락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21년 10월 25일	회차	1	시간	7분 13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892				
구술 개요	지인의 소개로 먹게 되었음, 만두에 국물이 스며들어 먹는 맛을 좋아함,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의 맛.				
주요 색인어	떡볶이, 가게, 초등학교, 결혼, 인천, 지인, 소개, 사장님, 양념, 카리스마, 시장, 만두, 떡만이, 파채, 맛, 국물, 추억, 주차, 학교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먹게 된 계기			00:00:00~ 00:01:29	▷기록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기록검수확인서	
- 결혼하며 인천으로 오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부터(10년 전 쯤) 먹기 시작했음. - 지인이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다고 소개해줘서 먹었는데 맛있고 맵지 않아 즐겨먹었음.					
2. 옛날과 현재			00:01:30~ 00:04:35		
- 사장님이 냄비에 양념을 대중없이 툭 던지듯이 넣는 게 인상이 남음. - 옛날에도 만두, 떡만이, 순대 위에 파채를 올려주는 것까지 똑같음. - 사장님이 바뀌면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지만 최근에 옛날 맛이 다시 올라와서 자주 가고 있음.					
3. 떡만이			00:04:36~ 00:05:55		
- 만두에 떡볶이 국물이 스며들어 해장국에 밥 말아서 먹는 느낌임. - 풍만해지는 맛이 좋아 꼭 떡만이를 먹음.					
4. 가게의 추억			00:05:56~ 00:07:13		
- 주차하기가 힘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면 쌍쌍카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음. -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의 추억이 구현되었음.					